

아동 인권 존중 교육



자녀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부모님의 실천

1. 자녀의 사생활 존중하기

- 자녀 일기장 몰래 보지 않기
- 자녀 휴대전화 몰래 보지 않기
- 자녀 책상, 가방 뒤지지 않기
- 자녀 우편물, 전자우편 몰래 보지 않기

2. 안돼!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 긍정적이고 권유형의 표현으로 대화하기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떨겠니?”

3. 자녀의 인격 존중하기

- 다정하게 이름 불러주기
‘야, 인마, 이 새끼’ 등 감정적 표현 사용하지 않기
- 자녀의 말 끊지 않기,

4. 자녀의 의견과 선택의 권리 존중하기

-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기

자녀 존중 십계명

1.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을 부모가 먼저 가져야 한다.
2. 가정 안에서의 의사결정에서 자녀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가족회의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3.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모는 단지 조언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4. 형제자매간에 성별, 나이, 학업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자녀를 이웃의 자녀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6.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일방적인 체벌보다는 왜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7. 교육적 체벌도 될 수 있으면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지 부모 자신이 먼저 성찰해야 한다. 자녀를 때리지 않고도 기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욕설해서는 안 된다.
8. 자녀를 흥분한 상태에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9.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생각과 생활 태도를 지니도록 늘 가르쳐야 한다.
10.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니되, 자녀의 사생활도 보호해주어야 한다.

비난받으며 자란 자녀는 욕하는 걸 배우고,
조롱 속에서 자란 자녀는 부끄러움을 배우고,
책망받으며 자란 자녀는 죄의식을 배운다.
용기를 얻으며 자란 자녀는 자신감을 배우고,
공정함 속에 자란 자녀는 정의감을 배우고,
인정받으며 자란 자녀는 그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

인권 관련 사이트 안내

인권이 침해되어 상담이 필요하거나, 인권에 대한 다양한 교육 자료 등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합니다. 시간되실 때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둘러보시면 인권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민원 신청 등 가능)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https://edu.humanrights.go.kr>
(세계인권선언, 인권교육 자료를 볼 수 있는 곳)
- *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 <http://human.jbe.go.kr>
(상담 및 전북학생인권조례, 인권교육 자료 등을 볼 수 있는 곳)